

“여수·순천·광양 통합 절대 안된다”

여수 100여 시민단체, 정부주도 통폐합 강력 반발 “범시민저항운동·헌법소원 등 병행 투쟁하겠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일고 있는 정부 주도의 ‘순천만 경제권’ 여수·순천·광양 도시 통합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100여 개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여수와 순천, 광양을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없는 정부 주도의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이하 개편추진위)가 여수와 순천, 광양시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없이 정부 주도의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일방 통행식 편법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통합은 그 지역민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

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시를 ‘순천만 경제권’으로 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개편위 주장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이는 군사독재 정권시절이나 가능한 반민주적인 발상과 특정지역의 이기주의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논리로 조작된 객관성을 잃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역민 의사를 무시한 음모적인 강제통합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범시민 저항운동과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법적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편위는 지난달 13일 자치구·군 74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치구·군의 경우 통폐합 전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평균 이하이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 부산 중·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10개 지역이 이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여수·순천·광양 지역은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 없이도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동부취재본부=임택기자 mtlim@



“엑스포 기간 승용차 안타기 동참하세요” 여수시 원로단체와 새마을운동 회원 등 200여 명은 3일 여수시청 앞 로터리에서 ‘승용차 안타기’, ‘엑스포 4대 시민운동’ 등에 대한 동참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안타기 등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홍보했다. <여수시 제공>

내일 낙안읍성서 ‘오이데이’ 도 농기원-오이 산학협력단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전남 오이 산학협력단(단장 양승렬 순천대 교수)은 5일 순천시 낙안을 낙안 민속마을에서 오이소배 축진을 위한 ‘오이 데이’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오이생과 100상자 5000개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는 한편 오이생과·봉지오이·사각오이·노각 오이비누 등 10여종을 전시해 오이의 가치에 대한 효용성과 활용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오이 농가와 관련 기관들은 매년 5월 2일을 ‘오이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판촉·홍보 행사를 갖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저소득층 어린이 10명 중 1명 “꿈 없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설문... 식의약품·의복 등 욕구 높아

저소득층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 본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 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아동 23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11%가 ‘꿈을 찾지 못했다’ 또는 ‘꿈이 없다’고 답했다.
미취학 아동 77명중 54%인 42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10.6%·중학생 8.6%·고등학교 9.9%가 ‘장래 희망 없음’에 답했다.
이를 세세별로 살펴보면 조손 가정 31%(82명)·시설아동 28%(73명)·한부모 18%(48명)·소년소녀가장 6%(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비스 욕구조사에서도 욕구도의 52.6%가 식료품과 의복·의약품·교재용품 등 생존지원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가와 문화에 대한 욕구도 23%로 높게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단순한 생존지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고 원하는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광양, 전봇대·통신케이블 경관심의 신규 개발사업지구는 지중화 추진

광양시는 거리 미관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전봇대와 전선·통신 케이블 등 설치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에 송전탑, 전봇대, 전선, 통신케이블 등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관법 및 광양시 경관 조례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산업단지 개발,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신규 개발 사업지구에는 지중화를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강화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경관 시설물에 관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경관법에 따라 2011년 10월 ‘광양시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부시장 이하 당연직 위원 6명과 디자인,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광양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시 의회 발자취 찾아 ‘의회사’ 출간... 전직의원 초청 기념회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희)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전직 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순천시 의회사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의회사는 우리나라 지방 의회사와 순천의 역사 5·16혁명 이전 483명의 역대 의원들과 시·군 통합 전 승주군과 순천시 의회 의원 28명과 지난 1995년 순천시·승주군과 통합 후 124명의 의원들과 31명의 순천지역 국회의원과 38명의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등재했다. 또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총 235회에 이르는 본회의 내용과 의회 활동사진 등을 총망라해 1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 책은 지난 1991년 5월 15일 순천시·승주군 초대 의회 개원된 이래 20년을 맞은 지난 2011년 지방자치 발전에 뜻 깊은 해를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펴냈다.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의정사를 기록해 순천시의회와 잠재력을 생산적 에너지로 분출시킬 수 있는 넓은 해안을 걸러줄 지침서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출간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전 북



순창군, 스마트폰으로 군민과 소통

순창군 공직자들이 3일 순창군 여성회관에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공무원과 군민간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한중FTA 대응전략 마련 ‘총력’

도, 경쟁력 제고·농식품 수출확대 등 사업 집중

전북도는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발효에 이어 중국과 FTA협상 개시를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그동안 운영했던 ‘농업분야 FTA대응 추진단’을 ‘전북 농·어업 FTA대책 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후 3일 1차 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FTA대책 위원회는 생산성 농수산물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친환경, 유통, 원예특작, 축산, 수산 등 5개 분야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 위원은 학계, 농업인, 농업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4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 운영은 분과별 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월 1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품목별 FTA 영향 ▲해당분야 주요현안 ▲FTA 대응 신규사업 발굴 ▲농업협약 애로사항 청취 ▲대정부 건의안 마련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2차 전체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별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분과위원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의 정책 반영 ▲중앙정부 건의내용 확정 ▲한·중 FTA에 대비한 농정방향 제시 등을 구체화 등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기후, 농업 생산구조, 재배 품목 등이 한국과 유사하고 주요농산물 가격은 30~50% 수준으로 낮아 한중 FTA 발효 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협상에 서 전북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쌀, 보리, 콩, 고추, 마늘 등 주요품목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양허를 제외하고 기타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장기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셰이프가드’(농산물 수입 일정물량 이상 급증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응책으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간다.
생산물 절감 등의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수출농업을 육성한다.
전북도 생산성 농수산장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전북 농어업 FTA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 기술로 전북 화훼 신품종 육성 ‘눈길’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화훼 신품종 육성에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기술을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법은 돌연변이 육종의 한 방법으로 유용형질이 발현된다면 짧게는 2~3년 만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반면 기존의 전통적인 교잡 육종법은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7~8년이 소요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2년 전부터 프리저아 구근과 장미 꺾꽂이에 정음 방사선 과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감마선을 쬐 후 변이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배육종을 통해 7작목 51개 신품종을 개발·등록했다”며 “방사선 육종은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어 머지않아 유용 돌연변이 형질을 가진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국내 로열티 지급액은 86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8억6000만원(전국 10%) 정도로 추정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시 전북 최초 U-통합 관제센터 본격 가동 첨단교통·방법 한번에... 사건·사고 신속 대응

전북 최초로 첨단교통과 방법이 하나로 통합된 군산시 U-통합 관제센터가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시 U-통합관제센터는 국토부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중소도시 부문 1위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
센터는 최첨단 영상통합시스템을 이용해 기존의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방법·교통·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아동 보호구역 등 목적에 따라 부서별 로제 각각 운영해 왔던 CCTV 550여 대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시는 도로 소통용도로만 사용돼 왔던 교통관제용 CCTV를 심야 시간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로 전환하는 등 CCTV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관제요원을 통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12 순찰대와 연계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생생한 영상정보를 통해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과 함께 범죄 대응체계를 갖춰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시 U-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군산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연계로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방범용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단 신 새만금 동서 2축 예비타당성조사 회의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전북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참여 연구진, 수요와 비용을 분석하는 용역기관, 국토해양부, 경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새만금 동서 2축 예비 타당성조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2축 건설사업은 지난 3월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서 2축도로는 새만금 신항을 분석하는 용역기관, 국토해양부, 경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새만금 동서 2축 예비 타당성조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2축 건설사업은 지난 3월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서 2축도로는 새만금 신항을 분석하는 용역기관, 국토해양부, 경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새만금 동서 2축 예비 타당성조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원광대병원, 심뇌혈관센터 1주년 건강강좌

원광대병원은 지난 2일 대학병원 대강당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건강강좌와 마당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뇌졸중의 이해와 대처’(원광대병원원 신경과 이학승 교수)에 대한 건강강좌와 심뇌혈관 건강 마당극 ‘신비의 영약을 찾아라!’(질병관리본부 건강알리미 연구단)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마당극은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담아 공연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최우수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공공무원(도시과 조용완)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이는 2010년 도로정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2회 연속 선정이다.
시는 ▲진봉초등학교 부근 급커브 도로구조개선 ▲방죽목 도로구조개선 ▲복죽동 도로확장 등 관내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20여명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자체에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투자 효과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순창군 ‘읍민의 장’ 대상자 선정 시상

순창군은 ‘읍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애향장 황현수(72)씨, 산장 장순옥(67)씨, 효열장 조순자(74)씨를 각각 선정·시상했다. 황씨는 재경 순창을 향우회 부회장을 맡아 출향민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교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강씨는 민속마을에서 장류사업자 하면서 연간 100~200t 이상의 우리 농산물 이용 및 200~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